

M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재학생 인식에 관한연구

이명주^{1*} · 구효진¹ · 김정남²

¹마산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²마산대학교 임상병리과 조교수

The study of student's perception on exter-curricula program of M University Program

Myeong-Ju Lee^{1*}, Hyo-Jin Goo¹, Jeong Nam Kim²

¹Associate 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inical Pathology, Masa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has an aim to operate the Exter-Curricula Program in a more efficient way through a survey of students' perception of the Exter-Curricula Program.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for students at M University. A total of 1,8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713 copie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0.0 statistical program.

Results: In the Exter-Curricula Program participation experience, 83.1% of students participated and 16.9% of non-participants participated. In the Exter-Curricula Program participation type, the number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lecture type was the most.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Exter-Curricula Program was surveyed to need a variety of experiences for employment. In addition, the preferred Exter-Curricula Program topics were career, employment and start ups-related the Exter-Curricula Program. In the Exter-Curricula Program recognition system, it was thought that it would be the most helpful to get a job after obtaining certifica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various Exter-Curricula Program development and operation related to employment that require the most attention for students are needed.

Keywords exter-curricula, Students' perception, university

Received on Sep 04, 2019. Revised on Sep 12, 2019. Accepted on Sep 23, 2019.

* Corresponding Author (E-mail: mjlee@masan.ac.kr)

이 논문은 2018년도 마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연구 된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I. 서론

대학의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정규교육과정은 전공교육과정과 교양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학점을 부여한다. 비교과 교육과정은 전공교육과정을 제외한, 학점을 부여하지 않으며[1], 재학기간 중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학생의 자기계발 노력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뜻한다[2], 정규교육과정은 주로 학문적 지식을 다룬다면 비교과 교육과정은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얻게 되는 학문적 지식 이외에 개별 학생의 역량을 발굴하고 해당 학생의 진로계획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높이는데 높은 교육적 효과를 제공 하고 있다[2][3]. 대학에서의 비교과교육은

학생들의 폭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구비한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역량을 갖추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4년제의 ACE사업, 3년제의 특성화, 혁신지원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마다 해당 대학의 인재상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각 대학별 비교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에서는 프로그램별 마일리지를 제공하거나 인증제도의 도입 등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 요구와 지식기반 사회에 따른 평생학습 사회로의 진입 등 빠른 변화에 맞추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비교과 교육과정이다[4]. 이러한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Lunenburg [5]은 이러한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생중심적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각 대학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김[6]은 현재 여러 대학에서 시행 중인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적으로 그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김과 이는[7] 이를 위해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과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총괄 관리부서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등[3]은 비교과 교육과정이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지식 이외의 개별 학생 역량 발굴 및 진로계획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는데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바 있다. 이[8]는 비교과 교육의 활성화가 정규교과를 보완하고 심화함으로써 학습자의 핵심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교과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이러한 관심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부서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M대학의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재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하고 또한 재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경남에 위치한 마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 기입 후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87부를 제외한 총 1,713부 최종분석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방법

설문문항은 김과 이[7]이 실시한 재학생인식조사의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문항은 일반적 특성,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조사(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할 수, 참여유형, 참여동기, 참여가능시간, 도움정도, 선호하는 비교과프로그램 주제, 비교과프로그램 필요성) 및 비교과 인증제(M-CT) 인식조사로 구분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Statistic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가능 시간, 유형, 비교과인증제(M-CT)의 구성형태, 운영부서의 필요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5점 척도(Likert Scale)에 의해 응답된 문항 및 순위 문항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동기, 선호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주제, 비교과인증제(M-CT)인식, 운영부서의 필요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학생이 1,182명(69.0%)으로 남학생 531명(31.0%) 보다 많았고, 학년은 2학년 687명(40.1%), 1학년 683명(39.9%), 3학년 343명(20.0%)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열은 자연과학이 1,074명(6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예체능 269명(15.7%), 인문사회 216명(12.6%), 공학 154명(9.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

Variables		N	%
Gender	Male	531	31.0
	Female	1,182	69.0
Grade	First-grader	683	39.9
	Second-grader	687	40.1
	Third-grader	343	20.0
Department	Natural Sciences	1,074	62.7
	Engineering	154	9.0
	The humanities	216	12.6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269	15.7
Total		1,713	100.0

2.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여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이 1,423명(83.1%)로 경험이 없는 학생 290명(16.9%) 보다

<Table 2> Exter-Curricula Program Participation

Variables	N	%
Exter-Curricula Program Participation Experience		
Yes	1,423	83.1
No	290	16.9
Total	1,713	100.0

<Table 3> Exter-Curricula Program Available time

Division	N	%
Once a week	993	69.8
2 times a week	311	21.9
3 times a week	83	5.8
4 or more times a week	36	2.5

<Table 4> Exter-Curricula Program Engagement Type

Type	N	%
Lecture Type(Special Lecture, Workshop, E-Learning, etc.)	980	48.0
Participation Type(Club, Volunteer, contest, etc.)	537	26.3
Dispatch Type(Intern, Overseas Exchange Students, etc.)	100	4.9
Consultation Type(Employment Activities, Academic Counseling, Learning Counseling, etc.)	425	20.8
Total	2,042	100.0

<Table 5> Exter-Curricula Program Participation Motive

Division	M±SD	Ranking
To need a variety of experiences for employment	3.78±0.78	1
To check my skill level	3.49±0.84	4
To utilize leisure time (ex. Hobby)	3.33±0.93	6
To improve my expertise	3.71±0.80	2
To make a diverse community (ex. Intimacy)	3.44±0.89	5
To require M-CT student competency certification	3.57±0.86	3

<Table 6> Preferred Exter-Curricula Program Topics

Division	M±SD	Ranking
Basic study diagnosis, Consulting, and Major foundation program such as Korean, English, and Math	3.30±0.92	5
Student council and club activities	3.43±0.89	4
Exter-Curricula Program on foreign languages	3.50±0.87	3
Career/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test	3.78±0.78	2
Exter-Curricula Program related to career, employment and start-ups	3.79±0.80	1

더 많은 학생이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가능 시간

수업 외 비교과 프로그램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주 1회가 993명(69.8%) 가장 많았고, 주 2회 311명(21.9%), 주 3회 83명(5.8%), 주 4회 이상 36명(2.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유형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형을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으로 구분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강의형(특강, 워크숍, 이러닝 등)이 전체 48.0%로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형(동아리, 봉사활동 공모전 등)은 26.3%, 상담형(취업활동, 학업상담, 학습상담 등)은 20.8%로 나타났으며, 파견형(인턴, 해외교환학생 등)이 4.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Table 4>.

5.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동기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취업 등을 위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서가 3.78로 가장 많았고, 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3.71, M-CT 학생역량 인증이 필요해서 3.57,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인지 점검하기 위해 3.49,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서 3.44, 여가 시간의 활용을 위하여 3.33 순으로 나타났<Table 5>.

6. 선호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주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주제는 진로 및 취·창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3.79, 진로/인·적성 및 심리검사 3.78로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어 관련 비교과프로그램 3.50, 학생회 및 동아리활동 3.43, 국,영,수 등 기초학습진단, 컨설팅 및 전공기초프로그램 3.30 순으로 나타났<Table 6>.

<Table 7> Necessity of Management Department of Exter-Curricula Program(M-CT Student Competency Activity)

Division	N(%)					M±SD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We need Exter-Curricula Program promotion, guidance and support.	11(0.8)	23(1.6)	544(38.2)	616(43.3)	229(16.1)	3.72±0.77

<Table 8> Structure of Exter-Curricula Program Certification System(M-CT Student Competency Activity)

Type	N	%
Exter-Curricula areas only	314	22.1
Liberal arts areas only	96	6.7
Major areas only	190	13.4
Exter-Curricula and Liberal arts areas	246	17.3
Exter-Curricula, Liberal arts, and Major areas	577	40.5

<Table 9> Recognition Survey on the Certification System(M-CT Student Competency Activities)

Division	M±SD	Ranking
Certification will help me develop my skills in the long run.	3.67±0.72	3
The certification system will allow students to experience courses in many areas (Exter-Curricula, liberal arts, and majors)	3.69±0.70	2
It will be easier to navigate the course because various experiences can be provided with the certification system.	3.66±0.73	4
The certification system also seems to value activities other than regular subjects(Exter-Curricula activities)	3.65±0.72	5
Getting certified will help you get a job.	3.70±0.74	1

7. 비교과프로그램(M-CT 학생역량활동) 운영부서의 필요성

교내에 M-CT 학생역량활동(비교과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부서의 필요성 및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안내 및 지원 부서가 필요하다는 3.72로 나타났다<Table 7>.

8. 비교과인증제(M-CT 학생역량활동)의 구성형태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M-CT 학생역량활동(비교과프로그램)의 구성 형태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교양, 전공 영역이 모두 혼합된 형태로 알고 있다가 577명(40.5%)으로 가장 많았고, 비교과 프로그램만 시행 314명(22.1%), 비교과 프로그램과 교양 영역 시행 246명(17.3%), 전공 영역만 시행 190명(13.4%), 교양 영역만 시행 96명(6.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8>.

9. 비교과인증제(M-CT 학생역량활동)인식 조사

학생들의 M-CT 학생역량활동(비교과 프로그램)을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6개 문항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인증을 받게 되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3.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러 영역(비교과, 교양, 전공)의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3.69, 장기적으로 나의 역량을 길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67,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므로 보다 쉽게 진로를 탐색 할 수 있을 것이다 3.66, 정규과목 이외의 활동(비교과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우리대학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줄 것이다가 3.6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9>.

IV. 고찰

본 연구는 M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재학생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비교과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분석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에서는 참여한 학생은 83.1%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16.9%로 조사되어 비교과프로그램에 80%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대학에서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

업(ACE사업), 특성화사업, 혁신지원사업이 정착되면서 학교마다 비교과교육과정에 대한 투자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비교과에 대한 중요성은 정규교과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1], 현실을 반영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학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확대 되고 있는데 학생들은 수업 외 비교과 프로그램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주 1회가 993명(69.8%) 가장 많았고, 주 2회 311명(21.9%), 주 3회 83명(5.8%), 주 4회 이상 36명(2.5%) 순으로 조사되어, 신[9]의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비교과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역량·소양·능력을 갖추는데 효과적[5]이지만, 학생들은 주 1회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고,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적 홍보 및 안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유형은 강의형이 48.0%로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형은 26.3%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상담형 20.8%, 파견형 4.9%의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신[9]의 연구에서도 강의형 참여가 54.5%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때 학교에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시 강의형 유형이 많았던 건 아닌지 아니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강의형을 많이 참여한 것 인지는 각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 자체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시 강의형, 참여형, 상담형, 파견형의 비율을 적절하게 개설하였는지 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설문조사를 통해 개설하였는지 등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취업 등을 위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서가 3.78로 가장 많았고, 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71, M-CT 학생역량 인증이 필요해서 3.57,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인지 점검하기 위해서 3.49,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서 3.44, 여가 시간의 활용을 위하여 3.3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주제는 진로 및 취·창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3.79, 진로/인·적성 및 심리검사 3.78로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어 관련 비교과프로그램 3.50, 학생회 및 동아리활동 3.43, 국,영,수 등 기초학습진단. 컨설팅 및 전공기초프로그램 3.30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선호하는 주제모두 취업 등의 다양한 경험과 취·창업관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문성을 찾기 위해서가 1순위, 취업등 다양한 경험을 위해가 2순위로 조사된 신[9]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차이

가 있었으며, 박과 정의[4]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취업과 관련된 영어, 면접, 자격증등인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전문대학생들은 취업을 목표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업에 관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에서는 취업관련 비교과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교과프로그램(M-CT 학생역량활동)의 구성 형태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교양, 전공 영역이 모두 혼합된 형태로 알고 있다가 577명(40.5%)으로 가장 많았고, 비교과 프로그램만 시행 314명(22.1%), 비교과 프로그램과 교양 영역 시행 246명(17.3%), 전공 영역만 시행 190명(13.4%), 교양 영역만 시행 96명(6.7%) 순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본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역량활동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학생은 577명 정도로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교, 학과, 학과교수들이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M-CT 학생역량활동) 인식에 관한 조사결과 6개 문항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인증을 받게 되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3.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러 영역(비교과, 교양, 전공)의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3.69, 장기적으로 나의 역량을 길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67,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므로 보다 쉽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3.66, 정규과목 이외의 활동(비교과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한다와 우리대학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줄 것이다가 3.65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을 점수화하여 인증을 해주는 인증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는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증을 받고 있는 경우가 높게 조사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은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학생들의 요구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 있고, 본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요구조사를 체계화하여 진행 하여야 할 것이며, 요구조사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M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어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비교과프로그램 종류의 예시나

선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인터뷰를 통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재학생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비교과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M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1,800부를 배부하여 1,713부를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에서는 참여한 학생은 83.1%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16.9%로 조사되었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유형에는 강의형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가장 많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동기는 취업등을 위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서로 조사되었다. 또한 선호하는 비교과프로그램주제로는 진로 및 취·창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비교과 인증제 인식조사에서는 인증을 받게 되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가 1순위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 학생들에게 관심이 가장 높은 취업관련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1. Park CN, Chung WH: Study on effects of Non-subject Educational Programs Influencing the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the Case of K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1): 39-71, 2017.
2. Yang KW: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University Extracurricular Education Manag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 U-CAAM.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4(3): 115-131, 2015.
3. Lee BK, Kim EJ, Yu GS, Lee WK, Chang SC: Studies on Extra-curricula Activities in Universities for Globaliz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4), 463-492. 2012.
4. Park JH, Ryu KU: The Analyses of the Concepts, Contents, Satisfaction and Future Needs for College Gene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2): 43-82, 2014.
5. Lunenburg F. C. *Extracurricular Activities Schooling* 1(1): 1-4, 2010.
6. Kim HJ: A Study on Cases of Operating Extra-curriculum Programs in Liberal Arts Classes - focused on the Team-based Reading Discussion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1): 761-790, 2017.
7. Kim SY, Lee MK: A Study on Students' Perceptions and Needs about College Extracurricular Program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9): 585-609, 2016.
8. Lee MJ: The Meaning of Education in the Core Competencies and Practice Strategies of the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the ACE Project. *Asian Journal of education*. 18(2): 339-364, 2017.
9. Shin HS: Analysis of students' perception on exter-curricula program of L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6): 303-332, 2017.
1. Park CN, Chung WH: Study on effects of Non-subject